

# 복구, 참여자 중심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구축한다



복구청 전경 사진

/광주 복구청 제공

근로 능력 및 자활 의지 등 참여자 역량에 맞는 지원책 제공

국비 1억 5천만 원 투입해 올 연말까지 사업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복구(구청장 신수정)가 자활 근로자의 자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7일 복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총 450명의 자활 사업 참여자에게 시범 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자활사업단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자활 사업 추진 시 참여자의 업무 역량과 자활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해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 유형은 참여자의 목표에 따라 ‘자립도전형’과 ‘자활준비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근로 능력과 자활 의지가 높은 참여자는 ‘자립도전형’ 사업에 배치돼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자활 의지가 부족한 참여자는 ‘자활준비형’ 사업으로 기초 근로 의욕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세부 과정은 지역사회센터 3개소(동산·일터·희망)를 통해 진행되며 ▲창업 도전형 ▲취업 도전형 ▲사회서비스형 ▲근로 준비형 등 4개 분야 5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복구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활 근로 참여자들을 일자리 사업

및 복지 자원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신수정 복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자립을 원하는 주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민이 주인인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오는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는 앞으로도 자활 참여자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기자

## 남구, 내달 1일 ‘빛고를 농촌테마공원 야영장’ 개장

자동차 캠핑장으로 16개 사이트 구축

국제 규모 축구장 완공시 레저 활동도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지난 6월에 문을 연 월산 근린공원 야영장에 이어 도심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캠핑 명소를 추가로 선보인다.

남구는 7일 “대촌 지역 빛고를 농촌테마공원에 조성한 야영장을 오는 8월 1일부터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빛고를 농촌테마공원 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 캠핑 공간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주민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조성됐다. 특히 자동차 야영이 가

능한 캠핑장으로 각 사이트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며, 총 16면의 텐트 사이트를 갖추고 있다. 또 바닥은 배수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파쇄석을 사용해 쾌적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화장실과 샤워실, 개수대 등 기본 편의시설을 함께 갖춰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캠핑 입문자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료는 평일 2만원, 주말·공휴일은 2만 5,000원이다. 성수기인 7~8월에는 2만 5,000원을 받는다.

이곳 야영장은 도심과 가까우면서 계절마다 변화하는 대촌 들녘의 풍경과 함께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

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빛고를 농촌테마공원의 다양한 체험 시설과 생태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야영장 인근에 짓고 있는 국제 규모의 축구장이 완공되면 레저와 스포츠를 결합한 캠핑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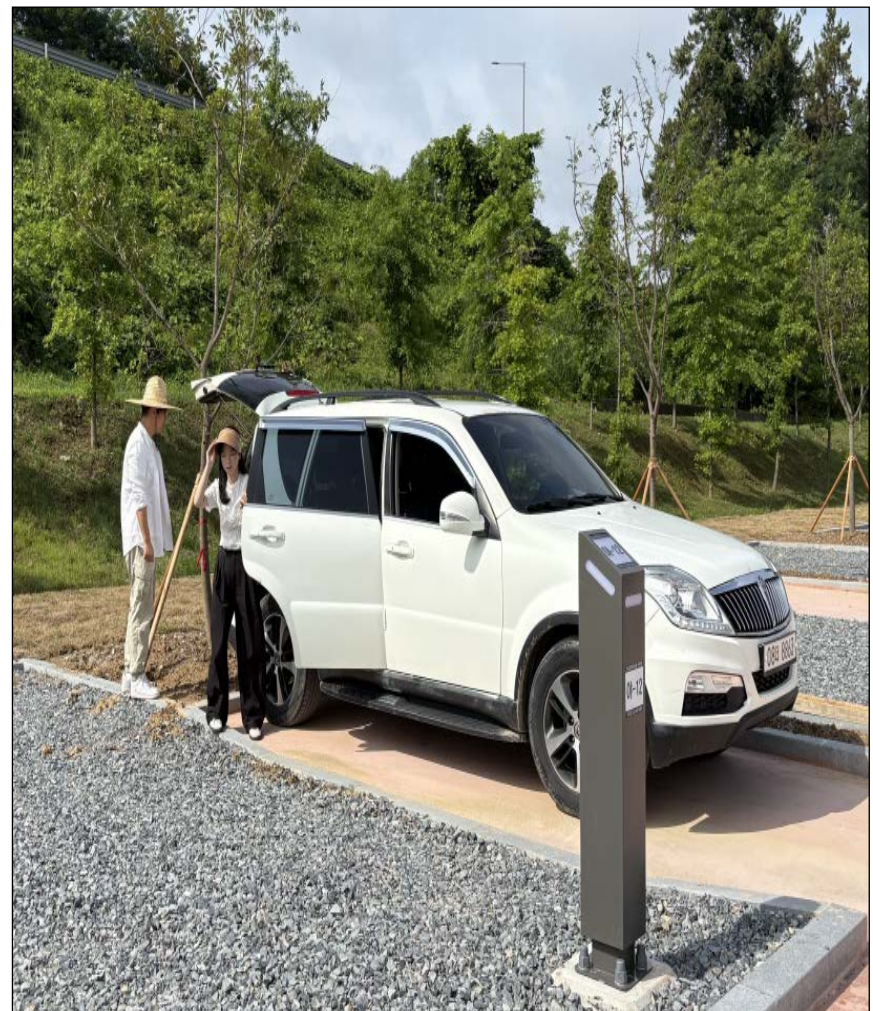
남구는 야영장 개장을 계기로 빛고를 농촌테마공원이 기존의 농촌 문화 체험 시설을 넘어 사계절 가족 관광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대표 여가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인근에 있는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와 포충사, 빛고를 공예창작촌, 대골제 및 향토제 수변 산책로 등 대촌권 관광자원 등을 연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빛고를 농촌

테마공원 야영장은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여가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 규모 축구장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남구를 스포츠와 캠핑,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대표 레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는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물 점검과 환경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쾌적한 캠핑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문화행사를 확대해 야영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직거래 행사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대촌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빛고를 농촌테마공원 야영장 전경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